

무용예술학연구 제27집 여름

# 한국 현대춤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제 8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을 중심으로 -

박 나 훈

성균관대 공연예술 박사과정

- |                                 |                               |
|---------------------------------|-------------------------------|
| I. 서론                           | IV. 한국 현대춤의 해체주의적 표현<br>양상 문제 |
| II. 해체성에 관한 담론                  | V. 결론                         |
| III. 제8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br>초청공연 | 참고문헌<br>Abstract              |

## I. 서론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1세기의 인류사회에서 다원주의는 기본전제이다. 이는 중세의 종교성을 지나 근대의 이성주의와 근대화 및 산업화의 열망을 거쳐 이념대립을 넘어선 지금의 민주주의의 시대의 상대주의 관점에 따른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냉전 종식이후 과거 지배정치질서와 사회문화이념이 더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음에 다양성과 확장성의 시대는 이제 열린 사회적 구조 속에서 평등한 경쟁과 질서로 더욱더 재편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국가의 경계조차도 불분명해지는 확장성의 시대에 있어서 21세기 인류에게 개별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아래 고유한 문화들이 조화를 이루고 고유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교류하는 경우를 말하는 다원주의시대<sup>1)</sup>의 의미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 김의수(1999). 문화 다원주의와 21세기 인류의 철학적 지향. 『시대와 철학』 18, p.7.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다원주의 문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서구 이성 중심의 사고체계에 대한 회의에 따른 후기 현대적 탈구조의 현상과 맞물리면서 예술계에도 해체와 융합 그리고 상대성을 지닌 다원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포스트 모던댄스(Post modern dance)와 독일의 신표현주의<sup>2)</sup>라 불리는 탄츠 테아터(Tanz theater)를 들 수 있다. 이 둘의 춤 사조는 모두 기존의 모더니즘(Modernism) 계열과 표현주의 계열에 대한 저항과 해체 그리고 승계를 통한 새로운 사조의 탄생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면서 한국 춤계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쳤고 현재에도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 모던댄스가 춤에 대한 분석적, 해체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춤 자체의 움직임의 강조하는데 반해, 탄츠 테아터는 움직임이 가지는 의미덩어리를 중시하는 형식<sup>3)</sup>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한국 창작춤과 현대무용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방법적 근간이 되기도 한다. 다만 외국 춤 사조의 무비판적 수용과 그릇된 수용 등의 부정적 측면을 낳고 있기도 하며 이는 우리 춤의 방법론 창출 노력의 미비함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지금 춤계의 다원화와 양식 확장 현상의 여파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기술 발달과 각 장르간의 해체와 통합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서구 이성 중심주의에 반하여 이분법의 해체와 탈 중심의 기치로 의미의 상대성을 주장하며 구조를 재구축하는 후기구조주의의 하나인 해체주의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서구춤에서의 해체주의적 양상은 1960-1970년대의 포스트 모던댄스의 전 반기의 객관화와 형식주의와 신체주의 그리고 후반기인 1980년대 절충주의적 양식을 지나 1990년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해체적 양식으로 문학과 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영역에 나타나고 있다.<sup>4)</sup>

요즘 흔히 무대예술로서 무용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각종 타 장르의 기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급기야 예술주체와 주제 그리고 예술방식의 열린 구조는 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보여준다고 할

2) 문애령 편저(1995), 『서양무용사』. (서울: 눈빛 출판사)

3) 민성희(1999). 한국창작춤에 있어 서구춤 수용의 성과와 한계. 『한국체육학회지』 38, p.681.

4) 공혜영(2007). 컨템포러리 무용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논문. p.152.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포스트 모던댄스 전반기의 형식주의와 객관성을 넘어선 21세기형 춤 양식의 파괴와 확장을 통한 예술로서 춤 재구축을 위한 시도로 보여지며 나아가 춤의 시대적 변화와의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원화된 문화적 분위기와 해체와 융합의 특징을 지닌 이 시점에서 춤의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한 깊이에 대한 탐닉은 자칫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비쳐져 보인다. 그러나 이렇듯 춤에 관련한 특정한 가치와 기술적 가치가 난무하면서 간과하게 될 춤의 사회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 그리고 이념의 현현이라는 예술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배제되는 모순을 지금의 현실에서 종종 목격하는바 본인은 춤 역사에 있어서 두드러진 춤 사조 변화중 하나인 탈현대 혹은 후기현대의 쟁점<sup>5)</sup>으로서 포스트 모던댄스의 연장선에서의 한국 컨템포러리 댄스(Contemporary Dance)<sup>6)</sup>인 한국 현대춤<sup>7)</sup> 내재된 해체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해체특징의 방법들이 우리 춤에 어떠한 형식과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나아가 현재 한국 춤에서 전통과 현대 그리고 포스트 모던댄스와 해체주의적 양식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전통의 정립<sup>8)</sup>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포스트 모던댄스의 탈 양식성도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며 명확한 춤 미학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는 춤 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한 형태인 해체주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한국 춤 계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인 해체주의적 특성을 살피고 나아가 창작의 내실을 다지며 동시에 창작의 지평을 열어가는 동시대적인 춤 미학 논의를 위한 자기 분석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 5)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해서 후기현대로서 승계관점을 지닌 하버마스와 탈현대로서 모더니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푸코를 비롯한 후기구조주의 자들의 견해가 있다.
  - 6) 본 연구자는 컨템포러리 댄스의 범주를 포스트 모던댄스의 연장선으로서의 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다양한 춤양식을 지칭 하고자 한다.
  - 7)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한국춤의 범주를 한국 창작춤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현대춤과 한국 창작춤을 모두 해당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 8) 김태원씨는 『후기현대춤의 미학과 동향』에서 조동화씨의 말을 빌어 한국 근현대사에서 현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전통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신무용의 양식적 기법만을 받아들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p.160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재 한국 현대 춤의 혼재된 양식의 파편들 속에서 가장 최근의 작업이며 또한 양식적으로 해체주의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은 동시대의 기획공연이며 미래의 춤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댄스포럼』이 주최하는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을 분석대상을 삼고자한다. 그중에서도 제8회에 출품된 작품들이 비교적 다른 해의 기획공연보다 해체주의적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을 8회 출품된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이 페스티벌은 1998년 『춤』지 창간 22주년을 맞이하여 IMF시대임에도 불구하고 LG화재의 지원 아래 젊은 무용가들에 대한 지원과 춤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초석을 마련해 준<sup>9)</sup> 보기 드문 춤 제전 이었다. 이 춤 제전은 첫 회에 3일 동안 아르크 예술 대극장에서 이뤄졌다. 1998년 『춤』지 창간 22주년을 기념으로 시작된 이 페스티벌은 그 이듬해 『댄스포럼』의 주최로 이어졌으며 해마다 LG화재의 후원을 받아 명실상부 한국 춤 예술 기업지원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러던 것이 해를 거듭해 나가면서 2007년에 들어서는 1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는 매 공연마다 우수 안무가를 선정하여 다음해에 재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11회를 이어온 동안 각종 프리뷰와 리뷰 그리고 홍보와 대관까지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2006년 들어서는 초기의 지원보다 훨씬 집중적이고 전폭적인 LIG의 지원으로 우수 안무가의 해외연수 지원까지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춤 양식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춤부터 현대무용과 발레에 이르기까지 세 장르를 고루 편성하여 공연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세대보다는 젊은 춤꾼을 주축으로 창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춤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춤꾼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다. 1998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11회째 행사를 치렀고 한국무용작품이 30편, 현대무용이 48편, 발레가 1편이 나왔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이 페스티벌은 댄스포럼이 주최하고 1998년 이래로 11년간 매년 지속되며 춤계에 흔치 않은 젊은 무용가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또한 현재 춤계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견안무가를 배출한 춤 지원 공연의 산실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아울러 신예 안무가들의 작품이 주를 이루는 공연이

9) 1998년. 월간 『춤』지. 8월호

고 그만큼 시대적 조류에 민감한 실험적 진취성이 다분하다는 측면에서 해체주의적 특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 2. 연구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비디오 자료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해체주의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의 비디오 자료에 나타난 작품의 특성을 해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아울러 『댄스포럼』과 『춤』지 및 평론 자료에 나타난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해체주의의 맥락에서 참고 자료로 살필 것이다. 그러기 위해 II장에서는 21세기 한국 현대춤의 뚜렷한 현상중의 하나인 해체주의의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대한 소개와 해체주의에 관한 담론을 다루고 III장에서는 제8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의 배경과 작품을 고찰하며 나아가 해체주의의 특성인 상호텍스트성과 차연, 탈중심, 파괴의 전략적 개념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위의 작품들에 내재된 해체주의적 양상을 살피고 한국 현대 춤에 내재된 해체성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문제에 대한 모색이 있을 것이다.

해체주의에 관련한 선행 연구자료로는 샤샤 발츠(Sasha Waltz)와 윌리엄 포사이드(William Forsythe) 무용을 해체주의관점에서 다룬 박사논문 한편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본연구자의 해체주의적 접근에 어려움도 있었다. 다만 주변 장르에 대한 해체주의적 접근과 위에 논문을 참고자료로 삼았고 나아가 한 타 논문과의 차별성을 피하기 위해 논문의 분석대상을 한국 현대 춤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첫째, 해체성의 대표주자라 불리우는 자크 데리다의 차연, 그라마톨로지, 흔적, 의미산중 등의 다양한 철학적 전략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춤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의 관점에 대해서만 주로 다룬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기획공연에 참가한 작품들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 형태의 무용분석방식인 자넷 에드워드 쉬드의 분석 방법이나 다른 분석방법 보다는 상호텍스트성, 차연, 탈 중심화, 파괴 개념을 중심으로 한 해체주의적 특성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한국의 다양한 춤 기획 공연 중 평론가가 뽑

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으로 국한시킨 것은 이 기획공연이 시대적으로 해체주의적 특성의 영향을 받은 기획공연이며 8회의 작품들이 비교적 해체주의적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과 또한 이 공연에 참가한 춤 작가들의 연령이 이제 30대 초반을 맞은 젊은 작가들로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물론 이 기획공연의 출연한 작가들의 작품들은 아직 뚜렷한 미학적 정체성을 가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창작의 과정에 있는 신예 안무가들로서 해체주의적 성향의 지속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아직 자신들의 춤 정체성을 다져나가는 시점의 공연들이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해체주의적 분석 접근을 통해 창작의 내실을 다지고 나아가 창작의 지평을 넓혀 가는데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의 춤 양식에 내재된 해체주의적 특성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해체주의적 특성이 열린 미학의 소재로서 우리 춤의 미학변화창출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피고 또 우리 춤계의 자기비판과 자기분석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와 함께 후기 혹은 탈현대의 양식들이 어떻게 험업 하여 새로운 미학창출을 이뤄낼 수 있는지 좋은 실마리를 찾는 데 본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 II. 해체성<sup>10)</sup>에 관한 담론

### 1. 자크 데리다

니체와 하이데거에 이은 후기구조주의, 해체주의의 대표주자로서 자크 데리다는 1930년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스페인계 유태인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유태인인 관계로 2차 세계대전 동안 반유대주의의 공포 속에서 자랐고 각종 인종차별 속에서 자연스레 독서에 몰두하게 되었고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루이 르그랑 학교를 거쳐 재수를 한 후에 고등사범학교에 진학, 졸업논문으로 「후설 현상학에서

10) 해체성에 대한 용어정리는 해체주의인 사조나 이즘 보다는 방법적 전략과 설정으로서 해체성이라 칭하겠다.

생성의 문제」를 제출했다.<sup>11)</sup> 이 학교를 졸업하던 20세 즈음에 푸코(Michel Foucault)를 만나기도 했고 무의식에 심취했던 푸코와 달리 의식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데리다는 후설이나 현상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후 교수시험에 합격한 후 푸코에 대한 비판과 함께 프랑스보다 미국에서의 이름을 알리게 된 데리다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폴 드만과 라캉을 만나고 「인문과학의 언설에 있어서 구조, 기호, 놀이」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문예비평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 논문에서 데리다는 서양의 로고스 이성 중심주의의 증독을 지적하며 해체의 암시를 주었고 매년 활발한 지적 연구로 활발한 해체연구를 하였고 사르트르처럼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례로 소르본 대학교의 교육과정개편에 항의와 반체제 인사와의 세미나를 통해 체코 경찰에 잡혀가는 등 현실에 적극 개입을 통해 실천하는 지식인상을 그려나갔다. 그러던 중 데리다는 프랑스 정부의 개입으로 석방되고 국제철학학교의 교장으로 선임된 후에도 다양한 현실문제에 개입하며 문학과 예술영역에 해체론을 적용하며 예술작업에도 직접 동참하기도 하였고 2004년 사망하였다.

일평생 동안 데리다는 일체의 권위에 맞서 모순을 폭로하고 이성 중심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역사, 정치, 주체 등 각종 개념들로부터 세계를 해방하기 위해 노력했던 실천적 저항으로 상징되었던 학자이며 실천가였던 것이다.

## 2. 해체성의 주요 개념

서구의 로고스 이성 중심주의와 이분법적 이항대립체계에 대한 해체전략으로서 해체성은 그 어떤 이념이나 사조 보다는 설정으로서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데리다의 해체는 진리와 존재재의 가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가진 니체와 하이데거의 영향으로부터 출발하며 서구의 이분법적 대립에 대한 의문제기이자 저항의 전략인 것이다.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과 해방의 성격을 지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도 있으며 절대적 진리인 형이상학이라는 사상체계에 대해 타자로서의 권위 회복을 통해 다의적인 사상과 사유의 해방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11) 김상환(2002). 데리다 소묘 『데리다 읽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p.13.

이러한 데리다의 해체성의 주요 용어로서 차연, 흔적, 상호텍스트, 의미산중 등을 들 수 있다. 이 용어들은 데리다의 해체성이 가지고 있는 방법적 전략을 드러내는데 먼저 ‘차연’이란 부재를 통해 현재적인 것들은 낳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구의 이분법적 절대논리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것들의 흔적을 통해 형이상학이 표상하거나 사유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가능성을 열어가자는 것이다. 또한 해석을 조건 짓는 상호관계의 장으로서 텍스트<sup>12)</sup>는 텍스트에 내재된 절대적 진리에 대한 허구성을 파헤치며 텍스트의 불완전성을 드러내어 해석의 자유와 확정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의미 산중의 결정불가능성’의 영역은 텍스트의 의미가 가지는 단수와 복수의 인식론적 구조를 벗어나 의미자체의 절대성을 흔들면서 자기 동일성을 해체한다. 나아가 해체성의 전략으로서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 내부에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탈 양식으로 다른 예술과 학문 그리고 타 장르와의 경계를 넘어 해체와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파편화를 통해 개별화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상대적 관점에서 부여하고 그 개별화된 파편들을 통해 예술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리다의 유명한 명제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학이나 예술영역에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해체성의 속성을 정치나 사회 과학의 영역에 까지 무리하게 확장시켜 지나치게 텍스트 중심으로 접근하였다는 문제점과 해체에서조차도 기존의 형이상학적 세계의 언어와 개념들에 의존하여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호관계의 망 속에서 텍스트 내부의 요소들 간의 차이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자기비판과 자기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체성에 대한 파괴와 회피라는 부정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해체를 통해 기존의 서구 중심주의의 이분법적 사고 방식아래 타자화되었던 것들이 소외로 부터의 해방을 통해 등장하여 인류역사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2) 유흥림(2002). 타자성에의 개방: 해체주의의 윤리적 함의. 『데리다 읽기』(서울: 문학과 지성사). p.94.

### III.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 1. 제8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 작품 특징

1998년 이래로 시작되어온 이 기획공연은 2005년에 제8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으로 아르코 예술대극장에 올려 지게 되었다. 총 여덟편의 작품이 올려 졌고 그중 현대무용이 다섯 편, 한국무용이 세편이었다.

작품으로는 박나훈 안무 「세계의 공기」, 박인주 안무 「온고이지신」, 이해준 안무 「누가 혹시 작살 잡는 것을 두려워하라」, 김정아 안무 「그림자의 시선」, 윤정민 안무 「스킨쉽」, 이태상 안무 「각속도」, 김정은 안무 「다른신을 섬기지 말라」, 정영두 안무 「내가 가진 하늘」이 무대에 일주일에 걸쳐서 올려 지게 되었다. 작품의 특징으로는 먼저 박나훈의 세 개의 공기이다.

#### 가. 박나훈의 「세 개의 공기」작품내용과 특징

이 작품은 무대미술로서 설치미술을 이용해 인간의 갈증의 문제를 풀기위한 자화상으로 표현한 안무작이었다.<sup>13)</sup> 부푸는 공기형상을 통해 신체의 파괴와 확장을 꾀하고 대사사용으로 종래의 안무형식을 확장 시키며 움직임 측면에서는 움직임 분절과 미술의 적극적 개입으로 탈구성적 해체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 〈표 1〉 박나훈 무용단의 「세 개의 공기」

---

세 개의 공기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워지길 원하고 바란다.  
 내가 채워지길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며 또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나를 채우고 있는, 채우기를 원하는 것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무게를 단다.  
 그리고 나를 채우고 있는 분노를, 허무를 두려움을 판다.  
 끊임없이 달리는 나는 무언가에 도달하기 위함이 아닌 달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달리는 것은 갈증이며 공기는 갈증이다.  
 그 자체인 것이다.

---

13) 유인화(2005).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 2005” 『댄스포럼』 통권 제69호.

## 나. 박인주의 「온고이지신」의 작품내용과 특징

### 〈표 2〉 박인주 무용단의 「온고이지신」

모든 것이 아주 오랜 옛날에 한 번 일어났던 일 같았다.  
 입은 옷과 배경음악과 대사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다.  
 결국 빙글빙글 돌아서 언제나 똑같은 곳에 다다르는 것이다.  
 마치 회전목마를 타고 영원히 승부가 나지 않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작품은 추상적인 주제를 비교적 쉽게 접근한 작품으로서 무대 중앙에 설치된 회전목마를 통해 흘러간 옛날의 기억을 반추한 작품이다. 작품의 특징으로는 먼저 움직임 측면에서 전통과 외국 춤 사조의 혼용과 절충 그리고 음악사용의 혼용의 특징을 나타내며 무용수의 움직임과 음악, 의상에서 전반부와 중 후반부의 군무가 대조되며 시간적 흐름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한 무대미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다. 이해준 안무 「누가 혹시 작살 잡는 것을 두려워하라」의 작품내용과 특징

### 〈표 3〉 이해준 무용단의 「누가 혹시 작살 잡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무용은 4개의 에피소드로 되어있다.  
 각각의 장은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독립된 구조를 갖게 하고 테뵤이앙즈망 기법의 유기적 사용과 멀티미디어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거대한 허위와 맞서 싸우는 '작살 잡이들'의 신념과 용기를 스펙터클하게 표현한다.

이 작품은 허멀 멜빌의 소설 「백경」에 등장하는 고래를 통하여 이 시대에 얽혀있는 허위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작살잡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변용과 확장을 꾀한 작품이다. 먼저 원작의 파괴와 확장의 특징을 들 수 있고 안무형식 측면에서 종래의 안무형식이었던 비언어적 양식에서 과감한 대사 사용이 이뤄졌고 포스트 모던댄스의 경향인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고 무대미술의 적극적 개입을 사용하였다.

## 라. 김정아 안무 「그림자의 시선」의 작품내용과 특징

이 작품은 인간관계에 내재된 시선에 얽힌 내용으로서 때론 말과 그 어떤 물리적

〈표 4〉 김정아 무용단의 「그림자의 시선」

시선 속에는 완벽한 침묵이 존재한다.  
말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선은 말한다.  
시선 속에는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최종 해석은 불가능하며  
있는 해석은 수많은 다른 해석과 수많은 시선의 권리이다.

인 소통보다는 무언의 시선 속에 존재한 수많은 기호와 의미를 통해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하려 한다. 나아가 이 작품 또한 움직임 측면에서 전통 호흡법의 현대적 확장을 꾀하고 호흡을 통한 몸의 분절과 무대미술의 적극개입을 그 주된 특징으로 삼고 있다.

마. 윤정민 안무 「스킨십」의 작품내용과 특징

〈표 5〉 윤정민 무용단의 「스킨십」

절망으로 눈을 닫아 버리고 누군가 보아 주기를 원했다.  
두려움으로 입술을 묶고서 누군가 불러 주기를 원했다.  
말없이 병들어 버린 가슴에 서리가 내린다 하여도  
혼자만의 시린 고독이 아닌 둘의 저런 고독이고 싶었다.  
홀로 앉아 있는 두려움 곁에 말없이 그리움이 앉아 있다.

현대인의 각박한 삶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감을 움직임측면의 한국의 전통적인 기법과 현대무용의 움직임을 혼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30개의 사각판을 사용한 무대미술로서 무대공간의 확장으로 인해 가상공간의 창출을 이뤄내고 있으며 움직임의 반복성을 사용하고 있다.

바. 이태상 안무 「각속도」작품내용과 특징

〈표 6〉 이태상 이태상무용단의 「각속도」

버팀목이 부러졌다.  
버팀목 하나가 부러지고 옆에 있던 버팀목이 또 쓰러졌다.  
쓰러지는 버팀목이 옆의 버팀목을 치고 일거에 몇 개의 버팀목이 쓰러졌다.  
버팀목이 쓰러지자 탄 더미가 쏟아져 내려 갱도를 막았다. 숨어있던 수맥이 터지면서 죽탄이 물려와 갱도를 막았다. 막힌 갱도 안 쪽, 희미한 앞전등 몇 개 켜 있다.  
탄도 3,500m지하, 산소 공급 파이프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 작품은 각속도의 물리적인 속성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감정을 배제한 채 담백하게 풀어내고 있다. 움직임 측면에서는 반복의 요소가 주를 이루고 양동이라는 무대 소품에 대한 의미의 다의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별한 무대미술을 존재하지 않는다.

#### 사. 김정은 안무 「다른신을 섬기지 말라」의 작품내용과 특징

##### 〈표 7〉 김정은 무용단의 「다른신을 섬기지 말라」

끝도 없이 반복된 것 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실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삶속에서 순간적이고 강하게 머리를 치는 섬광 같은 이것은 중국에 있을 “끝”에 대한 예감이 다. 신호라 하기에는 너무 순간적이어서 의식도 하기 전에 공기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 것, 그러나 삶은 일어날 그 무엇과 상관없이 흘러간다.  
어쩌면 뭔가 불꽃같이 감지하지만 멈출 수 없이 인간들의 충돌이 무관한 듯 사슬을 묶고 함께 진행된다.  
둘이 만나 충돌하고 셋이 만나 외면하고, 하나가 남아 이야기 하고 다섯이 만나 작용하면 질주하듯 치달는다.

이 작품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감을 작품의 동기로 삼아 끝이라는 이유로 현재를 이야기 하려한다. 움직임 측면에서는 앞의 작품들과 유사하게 반복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안무형식의 확장으로 언어사용과 연극배우의 기용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다. 무대미술은 특별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 아. 정영두 안무 「내가 가진 하늘」 작품내용과 특징

##### 〈표 8〉 정영두 무용단의 「내가 가진 하늘」

나는 어떤 하늘 아래서 살고 있나 생각해 보았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하늘, 대한민국의 하늘, 아시아의 하늘, 그리고 무용계의 하늘 등 하늘은 나에게 이상이고 꿈이다.  
과연, 내가 가진 하늘은 있는가, 또한, 우리가 가진 하늘은 있는가.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이 작품은 작가의 삶을 차분하게 반추하게 함으로서 오히려 관객에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조용히 반추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다. 앞서 많은 작품들이 무언가를 꺼내고 덧붙이는 작업인데 반해서 이 작업은 작품형식에서 우연성과 해프닝 기

법과 축소주의의 미니멀리즘 무대양식을 사용하고 움직임 측면에서 반복된 움직임과 외부로 확장된 움직임보다는 축소된 움직임으로 작고 밝은 에너지를 사용한다.<sup>14)</sup> 또한 기존의 조명사용의 배제와 함께 작품 내내 무음악을 사용하며 종래의 무음악 사용의 확장을 피하고 있다. 무대미술은 사용되지 않는다.

### 3. 해체주의적 접근

#### 가. 상호 텍스트성

춤에서의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 내부에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탈양식으로 다른 예술과 학문 그리고 타 장르와의 경계를 넘어 해체와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파편화를 통해 개별화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상대적 관점에서 부여하고 그 개별화된 파편들을 통해 예술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분법적 해체와 절충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생산하고 상호 소통하는 것이다.

그 뚜렷한 현상으로 박나훈의 춤은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설치미술이라는 타 장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분법적 해체와 절충의 미학을 가지고 있으며 박인주와 윤정민의 춤은 전통과 외국 춤 기법의 혼용과 절충 그리고 음악사용의 혼용을 통해 전형적인 상호텍스트성의 미학을 부여주고 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 해체의 특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해준과 김정아의 미술과의 협업에서 상호텍스트성을 엿볼 수 있으며 김정은의 춤에서는 연극배우의 기용으로 타 장르와 적극적인 텍스트의 관계 소통을 목격할 수 있었다.

#### 나. 차연

춤에서의 차연은 부재를 통해 현재적인 것들은 낳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대에서 가상공간의 창출이나 시간과 공간의 변형과 확장의 형태 등으로 나타나며 의미의 재창조를 가진다.

박나훈의 춤에서 차연의 성격은 바람으로 이뤄진 잎 형상의 기구의 바람의 들고

14) 장희재(2006). 한국 현대춤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p.59

나옴에 따른 시간적 지연과 공간적 간격의 특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팔 다리만 사용하는 움직임 본질을 통해 기존의 몸 구조에서 언제나 당연히 존재했던 몸의 일부분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부재를 통한 현재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차연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윤정민의 춤에서는 30개의 사각판을 사용한 가상공간을 활용한 공간의 확장을 피함으로서 존재하지 않은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공간에 대한 의미성을 찾고 이태상의 춤에서는 양동이라는 작은 소품을 통해 각속도의 이미지 표현을 양동이라는 협소한 소품의 세계로 전환함으로써 공간이동의 의미를 추구한다.

#### 다. 탈 중심화

탈 중심화는 전통성의 거부나 개방과 다원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그동안 중심에서 소외되어왔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서 춤에서는 장치나 음악 조명등 그동안 주변에 머물렀던 것들이 각자의 독립된 정체성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고 나아가 탈구성화를 통해 기존의 질서와 체계를 파괴하며 움직임에서 반복성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sup>15)</sup>

탈 중심성은 기존의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의 작품들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 중 미술의 적극적 개입이나 미술의 독립적 등장은 기존의 춤 공연에서 움직임 중심의 작업에서 주변부로의 관심변화라는 탈 중심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나훈의 무대미술과 이해준의 무대미술과 콜라주 기법을 통한 기존 질서 해체 그리고 윤정민과 이태상, 김정은, 정영두의 움직임의 반복과 일상적 움직임의 차용 등은 기존의 형식적인 춤 중심에서 주변부로의 관심변화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라. 파괴

해체주의 특성 중 가장 명확한 특징 중의 하나인 파괴의 개념은 춤에서 신체의 파괴와 원작의 파괴 형태 그리고 안무 형식과 다양한 확장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서 격렬하고 가학적이며 과격하면서도 극단적인 표현양상을 나타낸다.

박인주와 이해준의 춤은 먼저 전통춤의 파괴와 원작의 파괴를 통한 현대적 재해

15) 앞의 책. 공혜영 p.58

석이라는 새로운 시각접근을 통한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해준과 김정은은 종래의 안무형식인 비언어사용에서 언어와 대사사용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특히나 정영두는 조명사용에 있어서 일반 작업등 사용과 30분간의 춤 공연을 무음으로 대체하는 등 기존 안무형식의 파괴와 함께 무대공간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구조의 확장과 부재를 통한 현재를 열어가는 차연의 성격도 가지며 기존의 춤 중심에서 일상적 움직임 사용을 통한 탈중심과 탈구성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 IV. 한국 현대춤의 해체주의적 표현양상

이상과 같이 한국 현대춤에서 보여지는 해체주의적 양상은 대체적으로 움직임에서 전통과 현대의 절충, 기존의 춤 중심의 움직임에서 일상적 움직임의 사용과 해프닝의 도입 등을 통한 이분법적 해체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질서를 해체한 움직임의 반복 구조와 무대미술과의 협업을 통한 타 장르와의 결합 그리고 소품과 무대미술을 활용한 공간의 확장, 언어의 사용과 음악사용의 자유로움과 콜라주 기법을 통한 기존 안무형식의 탈피를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작품의 원작 파괴를 통한 재해석과 변용이라는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비단 제8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 젊은 안무가를 위한 기획공연을 비롯해 수많은 한국 현대춤 현상에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해체주의적 특성이라는 점을 언급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먼저 제8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국 현대춤의 해체주의적 표현양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특징을 놓고 볼 때 한국 현대 춤은 포스트 모던댄스의 객관성과 신체형식주의를 넘어 절충주의와 함께 21세기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신에 젊은 안무가들의 이러한 해체주의적 특성의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현대 춤의 해체주의적 특성은 비단 이 기획공연 뿐만

〈표 9〉 작가별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현상

해체주의 특성	안무가	춤에서의 현상
상호 텍스트성	박인주, 윤정민	전통과 외국춤 기법의 혼용과 절충 그리고 음악사용의 혼용
	이해준, 박나훈, 김정아	미술과의 협업
	김정은	연극배우의 기용
차 연	박나훈	바람기구를 통한 시간적 지연과 공간적 간격 및 움직임 분절
	윤정민	가상공간 활용
	이태상	소품활용한 공간의 의미 이동
탈중심화, 탈구성화	박나훈	무대미술
	이해준	콜라주 기법
	윤정민, 이태상 김정은, 정영두	움직임 반복과 일상적 움직임 차용
파 괴	박인주, 이해준	전통춤 파괴와 원작의 파괴
	이해준, 김정은	언어의 적극적 사용
	정영두	일반 작업 조명 설치와 무 음악

아니라 중견 안무가들과 각종 무용단체에서도 쉽사리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나아가 전통과 현대 그리고 포스트모던과 해체주의적 특성의 혼재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예술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이념적 가치와 상관없이 자칫 이러한 기술적 가치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본 연구자는 조심스럽게 가져본다. 특히나 이제 막 안무에 첫발을 내딛는 신예 안무가들에게 이런 비분석적이고 주체적인 수용의 관점 없이 해체라는 자유로운 이름의 양식적 가치들이 무분별하게 차용되는 것은 분명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움직임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의 절충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듯이 충분한 전통과 서구에 대한 훈련과 검증 없이 피상적으로 이뤄지는 움직임의 절충현상들, 일상적 움직임의 등장인 탈 중심성 측면을 간과한 채 무분별한 반복의 구조와 일상성의 차용, 춤 작가의 치열한 무대안목을 키우기도 전에 무대미술에 편승하는 모습, 움직임의 확장으로서의 언어가 아닌 불필요한 언어와 대사사용 등은 분명 지양되어야 할 문제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 8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에서 볼 수 있는 해체주의적 특성은 피상적으로는 해체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한국 현대 춤이 처한 시대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의 서구의 사조에 대한 분석적 비판을 함유하고 내부적으로 전통에 대한 각 안무가들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아직은 신예 안무가들이고 또한 몇몇 안무가들의 치열한 작가의식도 보여 지는바 일방적인 비판의 시각을 갖기에는 설부른 감이 있다.

다만 이 공연에 출연한 신예안무가들이 한국 현대 춤의 미래 주역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작가적 철학을 성립해 나가기를 바라는 면에서 기술적 가치의 일방적 수용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 먼저 해체주의의 창시자라 불리는 자크 데리다와 개념에 대한 연구와 그 주요 분석대상인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기획공연에 내재된 해체주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나아가 해체주의 특성의 수용문제에 관한 간략한 본연구자의 제언이 있었다.

연구결과로는 한국 현대 춤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현상으로서 첫째, 전통과 외국 춤과의 혼용과 절충 그리고 타 장르와의 협업을 추구하는 상호텍스트성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소품과 무대미술을 사용해 공간이동과 시간적 지연을 보여주며 부재를 통한 현재를 재 모색해 나가는 차연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는 콜라주 기법과 동작의 반복과 일상적 움직임의 차용을 통해 춤 작품속의 탈 중심성을 추구하며 탈 구성화를 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통춤 파괴와 원작의 파괴 및 언어의 적극적 사용 그리고 일반 작업 조명 설치와 무 음악사용의 극단적 사용으로 인한 파괴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 현대 춤에 나타난 여러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몇 가지 분석적 실마리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분석적이며 주체적인 양식 체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서구의 포스트 모던

댄스와 해체주의의 역사는 충분한 과도기를 거친 철학의 사조이며 춤 역사의 산물이나 우리의 역사는 서구와 다른 근대화의 과정을 거쳤고 나아가 한국 근대화의 춤 또한 전통에 대한 충분한 답습보다는 모던 즉,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고 따라서 춤에 관한 구체적인 현대적 변용도, 뚜렷한 발전의 미학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춤 양식에 있어서 현대 춤과 포스트 모던댄스의 특성 나아가 해체주의적 현상의 표피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서구 춤 사조의 표피적인 양식 답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후기 현대사회의 다양한 서구의 양식적 방법론에 대해 보다 분석적이고 주체적이며 객관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전통에 대한 냉철하고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아울러 외국 춤 사조에 대한 냉철한 분석만큼이나 한국 춤의 원형이라 불리우는 굿과 민속과 의식 춤을 비롯한 전통에 대한 올바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한 의미의 절충이라는 것은 각자의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수반하며 그 후에 해체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독자적인 양식 틀에서 한발 더 확장되어간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과거 신무용이 전통에 대한 충분한 답습 없이 전통 민속무용의 단순한 무대 옮김의 현상으로 그친 과거의 사례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충분한 내적 검증을 수반한 후에 절충의 미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학적 변화를 위한 주체적 안목에 관한 제언이다. 이는 일본의 현대무용 부토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서양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여 현존재의 밑바닥의 삶의 발현을 춤으로 승화시킨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딱히 전통이나 서구 춤의 분석적 자세도 중요하거니와 현존재의 주체적 시각을 갖기 위한 스스로의 세계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 현존의 감각에 대한 자신감과 과감한 형상화에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해체주의적 특성이 가지는 장점 즉, 과거의 절대적인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이동과 기존의 소외되었던 것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미에 대한 관심 전환을 통한 구조의 재구축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의 상호관계성을 통한 풍요로운 세계 건설이듯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존의 감각을 믿고 따르며 의미의

전환과 확장을 갖는데 주체적인 안목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보현 편역(1996). 『해체』. 서울: 문예출판사.
- 김태원(1992). 『현대춤의 미학과 동향』. 서울: 현대미학사.
- 문애령(1995). 『서양무용사』. 서울: 눈빛 출판사.
- 이성원 엮음(2002). 『데리다 읽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정희숙·반주은(2004). 『몸짓의 빛 그 한순간의 자유』.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허영일(1989). 『포스트 모던댄스의 미학- 그 한국적 수용을 위하여』. 서울: 정문사.
- 김의수(1999). 문화 다원주의와 21세기 인류의 철학적 지향, 『시대와 철학』, 제18호.
- 민성희(1999). 한국 창작품에 있어 서구춤 수용의 성과와 한계, 『한국체육학회지』 제 38권.
- 이광래(1996). 데리다의 해체주의, 계간 『과학사상』.
- 이예순·백현순(2006). 구조주의 철학과 한국 창작춤의 흐름, 『대한무용학회』, 제 49호.
- 장희재(2006). 한국 현대춤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 공혜영(2007). 컨템포러리 무용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논문.
-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초청, 『댄스포럼』 통권 제 69호 2005. 6. p.97-113.
- 월간 『춤』지. 1998년. 8월호.
- 김태원. 모던적 포스트모던 안에서 혹은 그것은 넘어. 『현단계, 춤예술 미학적 대안은 있는가(1)』 춤춤 닷컴. 2007년 5월. 2008년. [12월 1일] www.choomchoom.com
- 이진경. 의미를 포장한 문자의 편견. 『니체와 현대』. [12월 1일]
- <http://cafe.daum.net/modernnitchz>
- 2005년 「제8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 초청공연」비디오

논문투고일 2009년 6월 30일  
심사일 7월 2일  
심사완료일 7월 30일

**Abstract****A Study on the Attributes of Deconstruction in  
Modern Dance of Korea**

- Focused on the 8th Invitational Performance of Young Dancers by Critics -

Park, Na Hoon

*Ph. D. Coursework for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 studies at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looked into Jacques Derrida, the founder of Deconstruction, the study of concept, the study on “Invitational Performance of Young Dancers by Critics” and the intrinsic attributes of deconstruction in the performance. Furthermore, it presented a couple of propositions on the accommodation, of deconstruction.

The research investigated how the concepts of intertextuality, differance and decentering and destruction by Jacques Derrida were unfolded in the da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choreography. The findings are as such:

In terms of intertextuality, other genres and foreign dance trends are combined. The attributes of differance was in the creation of virtual space and the distortion and expansion of time and space. The decentering of deconstruction was revealed in the encounter with theatrical art, the destruction of the existing orders through collage, the repetition of motions and the borrowing of everyday movements, and the shift of interest from the existing formal dance to peripherals.

Lastly, the attributes of destruction was in the new visual approach of modern reinterpretation through the destruction of traditional dance and originals; an attempt to switch from a non-verbal language to the use of language and words; the use of regular lights; and the replacement of silence with the 30-minute dancing performance. Through the Invitational Performance of Young Dancers by Critics, such attributes as the destruction of the existing choreography and the presentation of a new meaning to the stage were disclosed.

As such, the attributes of deconstruction on the existing ways for the sake of the change of theatrical aesthetics have the limitations in terms of its accommodation.

First, the integration of analytical and independent mode. Second, a deeper study on the prototype of our dance is needed. Third, to nurture an subjective attitude through the existing sensuous training.

In conclusion, this paper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aimed to broaden the horizon of dance aesthetics with an independent perspective beyond indiscreet acceptance of deconstruction.

**keywords:** Accommodation of Deconstruction(해체주의 수용), Post-Modern(포스트모던), Aspects of Korean Modern Dance(한국 현대춤), Intertextuality(상호텍스트성), Differance(차연)